

수줍음이란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한 불편감(discomfort)과 행동 억제(inhibition)’로 정의된다(Jones et al., 1986). 이에 대해 Zimbardo 등(1977)은 수줍음이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내향적인 태도(revered manner of the introvert)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겸손(modest) 혹은 조심스럽고 소심한 태도(diffidence)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수줍음은 연구자에 따라 단일 개념으로 폭넓게 정의되기도 하며, 인지, 정서, 행동적 차원에 따른 분류나(Chęć, 2019; Sato et al., 2018), 기질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 따른 분류와 같이 구체적인 구분을 사용하여 정의되기도 한다(Browne & Howarth, 1977; Jones et al., 1986). 아직까지 그 구성 개념에 대해 연구자 간 명확히 일치된 의견은 없으나 수줍음이 누구나 흔히 경험하는 정서이며(Zimbardo et al., 1977), 안정적으로 발현되어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예: 성격 특성적 수줍음)과 비교적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예: 특정 조건에서 두드러지는 수줍음)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Carducci, 2016; Chęć, 2019; Cheek & Buss, 1981; Jones et al., 1986).

근래에는 수줍음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제안되는 한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파생되는 타 유사 개념들과 수줍음을 구분하고, 수줍음과 특히 관련된 개념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그 특성을 이해하려는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Carducci, 2016; Chen, 2019; Heiser et al., 2003). 대표적으로 수줍음은 주요 성격 특성 중 하나인 내향성(introvert)과 구분된다. 단순히 내향적이지만 한 사람은 수줍은 사람이 경험하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편감과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이 둘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Schmidt & Fox, 1999). 또한

수줍음의 대인관계 불편감,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의 회피, 철수(withdrawal)와 같은 인지행동적 특성이 사회불안 증상과 유사함이 지적되면서 두 개념이 함께 조명되기도 하였다(Jones et al., 1986; Turner et al., 1990). 그러나 사회불안군에 비해 수줍은 사람의 경우 사회적, 기능적 손상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에서 둘 또한 구분되고 있다(Heiser et al., 2003; Turner et al., 1990). 손상의 강도 및 다른 정신질환과의 공병 가능성과 같은 임상적 측면에서 사회불안이 좀 더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지만(Chęć, 2019), 수줍음 연구에서는 여전히 두 개념 간 공통성을 고려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Brook & Willoughby, 2019). 이에 더해 수줍음과 관련된 정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죄책감(guilt), 수치심(shame), 당혹감(embarrassment) 등이 주목받았다(신재은 등, 2015; Fehr & Stamps, 1979; Sette et al., 2019; Tangney et al., 1996). Fehr와 Stamps(1979)는 초기 수줍음 연구에서 다양한 유형의 죄책감이(예: 성적 죄책감, 적대적 죄책감, 도덕적 죄책감) 수줍음과 일관적으로 관련됨을 보인 바 있다. Tangney 등(1996)은 당혹감, 죄책감, 수치심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양한 차원에서(예: 강도, 기간, 관련 정서, 신체 감각 등) 살펴본 연구를 통해 당혹감이 죄책감, 수치심뿐만 아니라 수줍음과도 대표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Sette 등(2019)은 수줍음이 개인의 부정적인 사회적 경험(예: 대인관계 어려움)을 통해 죄책감, 수치심으로 이어지는 기제를 설명하였는데, 이를 통해 죄책감과 수치심 모두 수줍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연구자들은 수줍음과 유사 개념 간 차이점을 구분하는 한편 관련 변인들과의 연계성을 확인함으로써 수줍음의

구체적인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Nakai & Gurung, 2021; Sato et al., 2018).

한편 수줍음에 대한 연구는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보이는 양상을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으며(Browne & Howarth, 1977), 최근에도 다양한 사회 현상 연구에 수줍음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고은혜, 김근영, 2017; 김재현, 이형룡, 2020; Nakai & Gurung, 2021). 연구자들은 수줍음을 정의하고 관련 개념들과 구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Jones et al., 1986), 실험 연구를 통해 그 특성을 관찰하고 이론을 제안하는 등 연구를 심화시켜 왔다(Asendorpf, 1990; Ludwig & Lazarus, 1983). 최근에는 수줍음의 특성이 개인이 속한 문화에 따라 상이하게 발현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Afshan et al., 2015; Chen, 2019), 수줍음의 범문화적 혹은 문화 차에 따른 구성 개념을 탐구하고자 하는 문화 심리학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Afshan et al., 2015; Chen, 2019; Nakai & Gurung, 2021).

이러한 맥락에서 수줍음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Zimbardo(1977)의 Stanford Shyness Survey를 시작으로 Leary(1983)의 Social Reticence Scale을 비롯한 다양한 수줍음 척도가 개발되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Cheek과 Buss(1981)의 수줍음 척도인데, 이 척도는 개발 이후 수줍음 연구와 이론을 발전시킨 대표 연구자들이 참여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왔다. 해당 척도는 수줍음(shyness)과 사교성(sociability)을 측정하는 최초 9문항(Cheek & Buss, 1981)으로 시작하여 개정판 13문항(Revised Cheek and Buss Shyness Scale: RCBS; Cheek, 1983)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개정판 20문항(Cheek & Melichor, 1985), 개정판 14문항(Cheek & Briggs, 1990)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최근까지 가장 널리 쓰이

는 버전은 13문항 RCBS인데, 해당 척도는 미 발표 논문(Cheek, 1983)에 실린 것으로 구체적인 개발 과정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발자인 Cheek과 초기 수줍음 연구를 주도한 Jones를 포함한 Hopko 등(2005)의 연구자들이 13문항 RCBS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재타당화 한 바 있다. 같은 해에 Crozier(2005)은 14문항 RCBS의 타당화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근래에는 Sato 등(2018)의 연구를 통해 일본에서 20문항 RCBS에 대한 일본어판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최종 17문항이 선정되었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는 문화 차 확인을 위해 일본인과 미국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RCBS의 측정 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 검증 연구가 진행되었는데(Nakai & Gurung, 2021; Sato et al., 2018), 연구 결과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지 않아 수줍음이라는 개념의 속성이 범문화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도 수줍음 변인 연구를 위해 RCBS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은혜, 2014; 고은혜, 김근영, 2017; 김재현, 이형룡, 2020; 이현숙, 정현희, 2004; 정민, 2013). 다만 국내 선행연구에서 적용된 RCBS는 김근영, 윤진(1995)이 단순 번안한 것으로, 구체적인 타당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수줍음의 구성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제안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하게, RCBS의 개발 이후 시도된 여러 타당화 검증 연구에서 척도의 일관된 요인 구조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Crozier, 2005; Hopko et al., 2005; Nakai & Gurung, 2021; Sato et al., 2018). 먼저 원저자인 Cheek이 참여한 Hopko 등(2005)의 연구에서는 RCBS가 3개 요인(10문항)으로 구분되었으며, 요인 1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사회적 괴로움(social distress: SD)’, 요인 2는 보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낯선 이에 대한 수줍음(more circumscribed stranger shyness: SS)’, 요인 3은 ‘주장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결핍(assertiveness difficulty/deficit)’으로 명명되었다. Hopko 등(2005)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수줍은 연구 초기 Jones 등(1986)이 여러 수줍음 척도를 종합하여 요인 분석을 수행해 도출한 ‘사회적 회피와 공포(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높은 지위의 타인에 대한 공포(fear of high status others)’, ‘사회적 능숙함(social facility)’의 3요인 구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같은 해에 발표된 Crozier(2005)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단일 요인부터 5개 요인에 이르는 RCBS 구성을 각각 확인적 요인 분석하여 살펴보았는데, 최종적으로 2개 요인을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역채점 문항이 모두 요인 2로, 나머지 문항들이 요인 1로 묶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자는 특히 요인 2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RCBS에 역채점 문항이 적절하지 못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일본판 RCBS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었다. Sato 등(2018)의 연구에서 RCBS는 ‘수줍음: 긴장(tension of shyness)’, ‘수줍음: 능력(competence of shyness)’, ‘수줍음: 장애(disability of shyness)’의 3개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연구자는 이를 각각 수줍음의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Nakai와 Gurung(2021)은 미국인 데이터를 토대로 RCBS의 타당화 작업을 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단일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요인 구조의 비밀관성에 대해 Sato 등(2018)은 수줍음이 문화적 영향을 받는 요인임을 강

조하며,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줍음을 일종의 미덕,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줍음이 높은 경우, 보다 집단주의적 특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였다(송수민, 2009; 최명희, 김진숙, 2019; Nakai & Gurung, 2021; Sato et al., 2018). Nakai와 Gurung(2021)은 일본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RCBS 측정 동일성 검증이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를 들어, 수줍음의 문화차에 대한 견해를 추가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수줍음이 높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범문화적 특징(예: 신경성(neuroticism) 및 내향성(introversion), 사회불안과의 정적 관계성)을 고려했을 때 (Afshan et al., 2015; Nakai & Gurung, 2021), 이러한 견해차는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줍음 척도의 국내 번안본이 타당화 과정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을 바탕으로 한국판 RCBS 타당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RCBS는 요인 구조 비밀관성, 역채점 문항이 가지는 한계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한계점 이면에 수줍음이라는 개념에 대한 문화적 시사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과정에서 통계적 검증을 통해 척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한편 요인 구조를 명료히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수줍음과 관련 변인 간 관계성을 확인하여 척도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수줍음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여 RCBS의 하위 요인을 분류하였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분류된 요인 구조가 적합한지 검증하였다. 또한 한국판 RCBS와 수줍음 관련

변인인 사회불안, 수치심, 죄책감 및 타 척도에서 측정하는 수줍음 수준 간 상관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였고, 문화 차가 반영된 자기관 개념과의 관계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수줍음의 구성 개념 대한 이해도 함께 도모하고자 하였다. 먼저 동시 타당도 확인을 목적으로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RCBS 타당화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사회불안 척도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Hopko et al., 2005). 또한 한국인이 수줍음을 수치심과 한 범주로 받아들인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박소영, 주은선, 2019), 수줍음과 관련 정서들 간 관계성을 확인하여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해당 정서들을 포함하고 있는 척도를 사용하여 수치심, 죄책감, 수줍음을 측정하였다(이선화 등, 2012). 마지막으로, 수줍음 수준과 개인의 문화에 따른 자기관 개념 간 관계를 살펴보고 동시 타당도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Markus와 Kitayama(1991)의 문화적 자기관 관점을 확장 및 보완한 이누미야 등(2007)의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 자기관을 측정하였다. 자기관은 나를 사회적 맥락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와 연결된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로 나뉜다(Markus & Kitayama, 1991). 이때 전자를 ‘자율성 자기’로, 후자를 대인관계에서 작용하는 영향력의 방향에 따라 ‘주체성 자기(나를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로 봄)’와 ‘대상성 자기(나를 영향력을 수용하는 대상으로 봄)’로 구분한다(이누미야 등, 2007; 한민 등, 2009). Markus와 Kitayama(1991)가 주장한 집단주의적 태도와 연관된 것은 대상성 자기이며, 자율성 자기와 주체성 자기는 개인주의적 태도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한민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관점을 고려하여 수줍음이라는 속성이 대상성 자기와는 정

적 상관을, 자율성/주체성 자기관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거나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에 따라 세 가지 자기관 개념을 모두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판 수줍음 척도의 요인 구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한국판 수줍음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적절한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BK21FOUR글로벌 핵심 리더 연구지원 사업의 일환 중 하나로, 해당 문화 차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참가자는 리서치 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모집되었으며, 만 18세부터 69세 사이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형태로 진행되었다. 응답은 2021년 12월 07일부터 2021년 12월 08일까지 이틀에 걸쳐 수집되었고, 모든 참가자는 연구 설명서를 읽은 후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총 3,921명에게 설문을 전송한 후, 응답한 661명 중 참가 대상이 아닌 경우(184명), 중도 포기(104명), 불성실한 응답(53명)을 제외하고 총 320명의 최종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45.3세(SD = 13.28)이었다. 참가자들의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CBNU-202205-HR-0047)을 받아 진행되었다.

표 1. 참가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N=320)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60	50
	여	160	50
연령	19~29세	48	15
	30~39세	65	20
	40~49세	65	20
	50~59세	76	24
	60~69세	66	21

측정 도구

수줍음 척도(Revised Cheek-Buss Shyness scale: RCBS)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총 14문항 개정판 Cheek & Buss 수줍음 척도(Revised Cheek & Buss Shyness Scale: RCBS; Cheek & Briggs, 1990)의 국내 번안판을 참고하였다(김근영, 윤진, 1995). 해당 연구에서는 수줍음 척도의 번안만 이루어지고 타당화 과정은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국내 번안자에게 척도 타당화 작업에 관해 설명한 후 사용 허가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때 가장 최근 원저자가 참여한 개정판 타당화 작업이 14번 문항(“새로 사귀 친구와 이야기를 할 때 아무 말도 못하거나 바보스럽게 말할까봐 걱정스럽다.”)을 제외한 13문항 버전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국내 번안판의 14문항 중 13번 문항을 제외한 13문항 구성의 RCBS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Cheek, 1983; Hopko et al., 2005). 수줍음 척도는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수줍음 정도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줍음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김근영과 윤진(1995)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1이었고, Hopko 등(2005)의 연구에서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확인되었다.

단축형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와 사회 공포증 척도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 social Phobia Scale: SIAPS)

김소정 등(2013)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와 사회공포증 척도를 12문항으로 단축한 SIAPS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예: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 치기가 힘들다.”)과 수행 불안(예: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떨게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과 수행 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척도의 절단점은 21점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전체 문항 .95,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92, 수행 불안 .92로 나타났다.

차별적 정서 척도(Differential Emotions Scale-IV: DES-IV)

이선화 등(2012)이 번안 및 타당화 한 이 척도는 정서를 정적/부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정서 경험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RCBS로 측정된 수줍음과 관련 정서인 수치심, 죄책감 및 타 척도로 측정된 수줍음과의 관련성을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척도는 흥미(예: “하고 있는 일이나 경험하는 일들이 흥미롭습니까?”), 즐거움(예: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리듯 즐겁습니까?”), 놀람(예: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처럼 느끼니까?”), 슬픔(예: “기분이 처지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화(예: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끼니까?”), 혐오(예: “무언가가 혐오스럽습니까?”), 경멸(예: “누군가를 무시하고 깔볼 때처럼 느끼니까?”), 공포(예: “두렵고 떨립니까?”), 죄책감(예: “과거에 한 일이 후회스럽고 죄책감이 됩니까?”), 수치심(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는 것 같습니까?”), 수줍음(예: “부끄럽고 당황스럽습니까?”), 내부 적대감(예: “나 자신에게 화가 납니까?”)의 12개 요인을 각 3문항으로 측정하며, 총 36개 문항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 죄책감, 수줍음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선화 등(2012)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수줍음 .77, 수치심 .73, 죄책감 .71로 나타났다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줍음 .83, 수치심 .80, 죄책감 .77로 확인되었다.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관 척도(Subjective/Objective/Autonomous Self-construal scale: SOA)
수줍음과 문화적 영향에 따른 자기관 개념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누미야 등(2007)의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체성 자기(예: “나는 남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고 싶다.”) 6문항, 자율성 자기(예: “나는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편하다.”) 6문항, 대상성 자기(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두드러질 때 불편해진다.”) 6문항의 총 18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이누미야 등(2007)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주체성 자기 .77, 자율성 자기, .74, 대상성 자기, .7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체성 자기 .87, 자율성 자기 .84, 대상성 자기 .81로 확인되었다.

절차 및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Jamovi version 2.2.5를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320명의 자료를 난수표를 이용해 160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두 집단 자료로 각각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여 척도 타당화 작업을 진행한 후 최종 척도의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RCBS와 다른 척도들 간의 상관 계수를 바탕으로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RCBS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1(N=160)의 자료를 토대로 본 분석에 앞서 수집된 자료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KMO 표본적합도 지수(Kaiser-Meyer-Olkin Measures of Sampling Adequacy)를 확인하고 Bartlett 구형성 검정

(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을 하였다. KMO 표본적합도 지수는 변수 간 편상관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수들 간 연관성이 높을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된다(설현수, 2019). 일반적으로 값이 .90 이상일 때 우수한(marvelous), .80 이상일 때 양호한(meritorious), .70 이상일 때 중간 정도(middling), .60 이상일 때 평범한(mediocre), .50 이상일 때 빈약한(miserable) 수준을 의미하고, .50 미만인 경우는 자료가 요인 분석에 부적절함(unacceptable) 것으로 판단한다(Kaiser, 1974).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이 0인지 검정하는 것으로, 유의확률 p 값이 .05보다 작아야 자료가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황성동, 2019; Bartlett, 1950). 또한 자료의 정규성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왜도의 절댓값이 2 미만, 첨도의 절댓값이 7 미만인 경우 정규성 가정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Curran et al., 1996). 마지막으로 문항·총점 간 상관을 산출하여 척도와 상관이 낮은 문항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요인 분석 적합성 확인 후, RCBS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최대우도 요인추출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최대우도 요인추출법은 연구 대상자가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일 경우에 시행하며, 요인 수에 대한 가설검증이 가능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석법으로 알려져 있다(원태연, 정성원, 2010). 요인의 수는 따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요인 개수 선정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여겨지는 평행 분석(parallel analysis)을 선택하였다. 평행 분석은 실제 자료를 통해 얻은 고유 값을 무선 자료에서 얻어진 고유 값과 비교하여 요인 수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Horn, 1965). 다음으로 보다 간편하고 이론적으로 더 의미 있는 요인의 해를 구하기 위해 요인 회전을 시행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 간 상관을 고려하여 회전하는 방법인 Oblimin 방법을 사용하였다(설현수, 2019). 마지막으로 모든 분석 설정을 선정한 후, 산출된 요인 부하량은 .30 이상인 것을 선택하였다. 통상적으로 요인 부하량이 .30 이상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보며(Crocker & Algina, 1986), 하나의 문항이 두 요인 이상에서 갖는 요인 부하량의 차이가 .1 미만인 경우 교차 부하(cross loading)된 것으로 간주한다(Costello & Osborne,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교차 부하된 문항은 삭제 후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 구조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 2($N=160$)의 자료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대표적인 적합 지수인 χ^2 및 CFI, TLI, SRMR, RMSEA를 사용하여 보고하였다(홍세희, 2000). χ^2 은 모형의 복잡성과 표본수에 영향을 받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적합 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적합도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우종필, 2022). χ^2 은 도출된 값의 유의 확률이 .05 이상일 때 적합한 것으로 본다. CFI와 TLI는 .95 이상일 때 좋은 모형, .90 이상일 때 만족스러운 모형으로 보고(Navarro & Foxcroft, 2019), SRMR와 RMSEA는 .05 이하일 때 좋은, .08 이하일 때 적절한 모형으로 본다(Browne & Cudeck, 1993; Byrne, 2013; Hu & Bentler, 1999).

마지막으로 최종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와 McDonald's ω 를 산출하였고, RCBS와 다른 척도들 간 구성 타당도 확인을 위해 상관 계수를 확인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Cohen(1988)의 기준을 참고하였으며, 각 효과 크기는 ‘0.1(작음)’, ‘0.3(중간)’, ‘0.5(큼)’을 기준으로 해석하였다.

결 과

RCBS의 탐색적 요인 분석

집단 1의 분석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KMO 지수는 .91로 좋은 수준에 해당하였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값은 $\chi^2(78, N=160)=999.25, p<.001$ 로 요인 분석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문항 모두 왜도 절댓값 2 미만, 첨도 절댓값 7 미만으로 정규성 기준을 충족하였다(Kline, 2005). 이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하

였다. 최대우도 요인 추출법과 평행 분석, Oblimin 요인 회전기법을 통해 최초 2요인으로 분류된 13개 문항 중 어느 요인에도 부하되지 않는 9번 문항을 삭제하여 12개 문항이 산출되었다. 이때 4번 문항이 요인 1과 2에 .48과 .39로 교차 부하되었고, 5번 문항이 .47, .39로 교차 부하되어 4번과 5번을 삭제한 총 10문항을 선정하여 재분석하였다. RCBS에 대해 Crozier(2005)는 역채점 문항이 내용의 차이에 불구하고 같은 요인으로만 묶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 역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과 역채점 문항의 문항 신뢰도가 .16~.36으로 매우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0문항에서 역채점 문항인 3, 12번 문항을 삭제한 후 요인 1에 0.34, 요인 2에 0.29로 추가 교차 부하 되는 13번 문항을 제외한 총 7문항의 분석 결과 값도 함께 제시하였다. 10문항과 7문항의 경우 2요인으로 분류되었으

표 2. 탐색적 요인 분석 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160)

문항	M	SD	왜도	첨도
1	2.90	1.07	-0.36	-0.88
2	2.50	1.03	0.22	-0.57
3	1.44	0.92	0.30	-0.29
4	2.86	1.07	-0.03	-0.57
5	2.77	0.98	-0.06	-0.69
6	3.06	1.08	-0.31	-0.74
7	2.97	0.97	-0.42	-0.47
8	2.99	1.01	-0.31	-0.63
9	2.29	0.95	0.02	-0.28
10	2.36	0.96	0.30	-0.65
11	2.40	1.03	0.55	-0.11
12	1.86	1.14	0.16	-0.69
13	2.73	1.00	-0.04	-0.60

표 3. 탐색적 요인 분석에 따른 한국판 RCBS의 요인 부하량 (n=160)

문항	12문항		10문항		7문항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고유값	고유값	고유값	고유값	고유값	고유값		
6. 낯선 상황(처음 가는 자리)에서 쉽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	0.88	-0.07	0.30	-0.05	0.31	0.89	-0.07	0.29
1. 나는 잘 모르는 사람과 있을 때, 긴장이 된다.	0.81	0.03	0.31	0.04	0.33	0.76	0.06	0.35
7.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	0.79	0.08	0.28	0.10	0.25	0.80	0.10	0.24
8. 나보다 뒷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긴장이 된다.	0.61	-0.04	0.67	-0.02	0.67	0.60	-0.03	0.67
4. 나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나 모임에서 불편할 때가 많다.	0.48	0.39	0.35					
5.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0.46	0.39	0.38					
13. 나는 이성과 말할 때 더 수줍어한다.	0.46	0.15	0.67	0.44	0.19	0.65		
11. 나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상황에서 주눅이 든다.	0.07	0.76	0.34	0.08	0.76	0.34	-0.06	0.89
3. 나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물어보는 편이다. [R]	-0.23	0.66	0.73	-0.22	0.65	0.73		
2.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0.24	0.60	0.38	0.27	0.54	0.42	0.20	0.61
10. 나는 다른 사람의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이 힘들다.	0.17	0.58	0.51	0.14	0.63	0.45	0.11	0.63
12. 나는 모르는 사람과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R]	-0.11	0.40	0.89	-0.10	0.38	0.90		

주: [R] = 역채점 문항

며, 모든 문항의 요인 부하량 값이 .30 이상의 수치를 보여 적정 기준을 충족하였다. 10문항의 설명량은 49.43%, 7문항의 설명량은 60.83%로 나타났다. 10문항 및, $\chi^2(26, N=160)=40.06$, $p=.038$, TLI=.96, RMSEA=.06(90% CI: .01-.09), 7문항의 모형 적합도 역시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chi^2(8, N=160)=8.52$, $p=.384$, TLI=1.00, RMSEA=.02(90% CI: .00-.10).

RCBS의 확인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10문항 2요인 모형은 적합도 지수가 수용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나(RMSEA=.11), 7문항 2요인 모형의 경우 모든 수치에서 적절한 모형 적합도 값을 보였다. 따라서 두 모형 중 7문항 2요인 모형을 최종 선정하였다. 7문항 2요인 모형에 대해 각 문항들과 요인 간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는 요인 1에서 .71-1.00, 요인 2에서 .72-.78의 범위로 확인되었고 모두 유의하였다, *all ps*<.001. 10문항 및 7문항 2요인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그림 1과 표 4에 제시하였다.

최종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요인 1은 “나보다 낯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긴장이 된다.”와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두드러지는 수줍음을 표현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Hopko 등(2005)에서 제안된 ‘낯선 상황/사람에 대한 수줍음(more circumscribed Stranger Shyness)’의 개념을 참고하여 ‘상황적 수줍음(circumscribed shyness)’으로 칭하였다. 요인 2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와 같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특질적인(trait) 수줍음이 강조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2의 경우 다수의 선행 연구자들이 주장한 수줍음의 성격(personality)적 특성을 반영하여 ‘보편적 수줍음(general shyness)’으로 명명하였다(Jones et al., 1986; Nakai & Gurung, 2021; Zimbardo, 1977).

RCBS의 문항 분석 및 내적 일치도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산출된 각 문항에 대한 기술 분석 및 내적 일치도 계수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총 320명의 참가자 응답에 대한 7문항 RCBS의 문항 평균은 19.79(*SD* = 5.71)였다. RCBS 전체의 내적 일치도는 .89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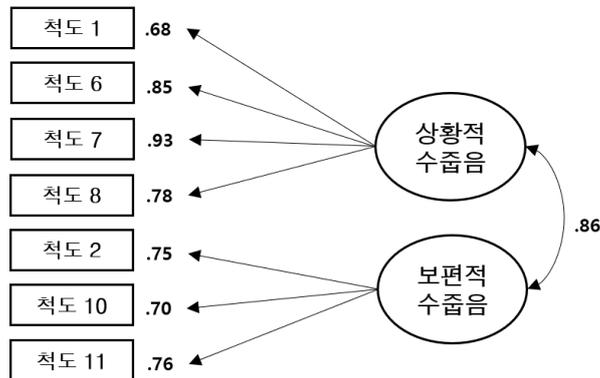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한 요인 구조 모형과 표준화된 요인 계수

표 4. 확인적 요인 분석에 따른 RCBS의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n=160$)

모형	χ^2	df	CFI	TLI	SRMR	RMSEA	RMSEA 90% CI	
							Lower	Upper
2요인(7문항)	26.64*	13	0.98	0.97	0.04	0.08	0.04	0.12
2요인(10문항)	102.95***	34	0.91	0.88	0.06	0.11	0.09	0.14

주 1. CFI = Comparative Fit Index, TLI = Tucker Lewis Index, SRMR = standard root mean residual,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I = Confidence Interval

주 2. 최종 선정된 모형을 굵게 표시함

표 5. 한국판 RCBS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n=160$)

요인	문항	Estimate	SE	Z	p	Stand. Estimate
상황적 수줍음	1. 나는 잘 모르는 사람과 있을 때, 긴장이 된다.	0.71	0.08	9.42	< .001	0.68
	6. 낯선 상황(처음 가는 자리)에서 쉽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	0.96	0.07	13.24	< .001	0.85
	7.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	1.00	0.07	15.34	< .001	0.93
	8. 나보다 뒷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긴장이 된다.	0.81	0.07	11.60	< .001	0.78
보편적 수줍음	2.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0.72	0.07	10.28	< .001	0.75
	10. 나는 다른 사람의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이 힘들다.	0.77	0.08	9.42	< .001	0.70
	11. 나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상황에서 주눅이 든다.	0.78	0.07	10.47	< .001	0.76

주. Z = Estimate/SE

표 6. RCBS의 문항 분석 및 신뢰도 (N=320)

문항번호	M	SD	문항 총점 상관	문항 제거 시	
				<i>a</i>	<i>w</i>
1	3.07	1.08	0.69	0.88	0.88
2	2.52	1.00	0.69	0.88	0.88
6	3.17	1.11	0.75	0.87	0.87
7	3.00	1.02	0.81	0.86	0.87
8	3.10	1.03	0.63	0.89	0.89
10	2.46	1.04	0.62	0.89	0.89
11	2.48	1.03	0.67	0.88	0.88

으며, 각 요인에 대해서는 상황적 수줍음 요인 .87, 보편적 수줍음 요인 .80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판 RCBS의 수렴 및 동시 타당도

RCBS의 수렴 및 동시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RCBS와 하위 척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및 사회공포증 척도, 차별적 정서 척도,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RCBS 척도 전체 점수와 하위 요인 간 관계성을 보았을 때, 상황적 수줍음 요인과, $r=.95, p<.001$,

보편적 수줍음 요인은 큰 크기 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89, p<.001$. 추가적으로 두 하위 요인 간 관계 역시 큰 크기 이상의 상관이 확인되었다, $r=.70, p<.001$. 수렴 타당도 확인을 위한 RCBS와 관련 변인 간 관계성을 살펴보면, RCBS 전체 점수는 사회불안을 측정하는 SIAPS와 큰 크기 이상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67, p<.001$, 차별적 정서 척도의 죄책감

과는 중간 크기 이상의, $r=.35, p<.001$, 수치심, $r=.42, p<.001$, 수줍음과는 큰 크기에 가까운 정적 상관을 보였다, $r=.49, p<.001$. 이는 수줍음이 사회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유사 정서인 죄책감,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수줍음과 문화적 변인 간 관계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 RCBS 전체 점수와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의 상관분석 결과, RCBS 전체 점수는 주체성 자기와는 중간 크기에 가까운 부적 상관을, $r=-.28, p<.001$, 자율성 자기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한편, $r=-.10, p=.080$, 대상성 자기와는 큰 크기에 가까운 정적 상관을 보였다, $r=.46, p<.001$. 이는 나를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로 이해하기보다는, ‘사회적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수줍음과 더 연관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RCBS의 두 하위 요인 역시 척도 전체 점수와 타 척도 간 관계 양상과 동일한 관계성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상관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RCBS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및 사회 공포증 척도, 차별적 정서 척도,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 간 상관관계 (N=3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M	19.79	12.33	7.46	12.91	7.00	5.91	7.35	6.94	6.76	24.65	25.12	29.02
(SD)	(5.71)	(3.59)	(2.58)	(9.72)	(5.16)	(5.05)	(2.46)	(2.55)	(2.49)	(6.50)	(5.65)	(5.71)
1. RCBS_T	—											
2. RCBS_상황적 수줍음	0.95 ^{***}	—										
3. RCBS_보편적 수줍음	0.89 ^{***}	0.70 ^{***}	—									
4. SIAPS_T	0.67 ^{***}	0.58 ^{***}	0.67 ^{***}	—								
5. SIAPS_상호작용 불안	0.69 ^{***}	0.60 ^{***}	0.70 ^{***}	0.95 ^{***}	—							
6. SIAPS_수행 불안	0.58 ^{***}	0.50 ^{***}	0.58 ^{***}	0.95 ^{***}	0.81 ^{***}	—						
7. DES-IV_취체감	0.35 ^{***}	0.27 ^{***}	0.39 ^{***}	0.37 ^{***}	0.37 ^{***}	0.34 ^{***}	—					
8. DES-IV_수줍음	0.49 ^{***}	0.39 ^{***}	0.52 ^{***}	0.50 ^{***}	0.47 ^{***}	0.48 ^{***}	0.75 ^{***}	—				
9. DES-IV_수치심	0.42 ^{***}	0.35 ^{***}	0.44 ^{***}	0.44 ^{***}	0.41 ^{***}	0.42 ^{***}	0.72 ^{***}	0.83 ^{***}	—			
10. SOA_주체성	-0.28 ^{***}	-0.29 ^{***}	-0.22 ^{***}	-0.14 ^{**}	-0.19 ^{***}	-0.08 ^{***}	0.05 ^{***}	0.02 ^{***}	0.09 ^{***}	—		
11. SOA_대상성	0.46 ^{***}	0.44 ^{***}	0.40 ^{***}	0.42 ^{***}	0.44 ^{***}	0.36 ^{***}	0.31 ^{***}	0.42 ^{***}	0.36 ^{***}	-0.21 ^{***}	—	
12. SOA_자율성	-0.10 ^{***}	-0.08 ^{***}	-0.11 ^{***}	-0.13 [*]	-0.11 ^{***}	-0.14 [*]	-0.01 ^{***}	-0.12 [*]	-0.14 [*]	0.38 ^{***}	0.02 ^{***}	—

주. RCBS_T = Revised Cheek-Buss Shyness scale total score, SIAPS_T =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 social Phobia Scale total score, DES-IV = Differential Emotions Scale-IV, SOA = Subjective/Objective/Autonomous Self-construal scale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수줍음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인 RCBS의 한국판 타당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온라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RCBS의 요인 구조, 내적 일치도, 수렴 및 동시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역채점 문항을 제외한 총 7문항의 2요인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 역시 양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한국판 RCBS는 ‘상황적 수줍음(circumscribed shyness)’과 ‘보편적 수줍음(general shyness)’의 2요인 구조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분류는 요인 구조가 동일하진 않으나, Hopko 등(2005)의 연구에서 도출된 3요인 중 ‘낮선 이에 대한 수줍음(6, 7번 문항 포함)’, ‘사회적 괴로움(2, 11번 문항 포함)’ 요인이 가지는 의미와 맥락을 같이 한다. Hopko 등(2005)은 연구 결과를 초기 수줍음 연구에서 확인된 Jones 등(1986)의 요인 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특히 ‘낮선 이에 대한 수줍음’ 요인이 구체적인 수줍음의 양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논한 바 있다. 그러나 ‘상황적 수줍음’ 요인의 경우 ‘낮선 이에 대한 수줍음’ 요인의 문항 외에도 ‘윗사람’을 담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보편적 수줍음’ 요인의 경우 ‘잘 어울리지 못한다.’, ‘주눅이 든다.’와 같이 직접적인 괴로움을 의미하기보다 다소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수줍음 양상에 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본 연구 결과 도출된 요인들을 각각 ‘상황적/보편적 수줍음’으로 명명하였다.

수줍음이라는 개념은 성격적/기질적 수줍음의 의미 한편으로 사회적 맥락에서 사교성의 의미가 내포되는 것으로 간주 되어 왔다(Cheek & Buss, 1981). Sato 등(2018)은 수줍음을 정서/행동/인지적 차원의 3개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이 구분에 기반이 된 Carducci(2016)의 연구에서는 정서/행동적 차원으로 나타나는 수줍음과 더불어 사회적 상황에서 인식 및 표현되는 수줍음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근래에 수줍음에 대한 견해를 검토한 Cheć(2019)은 수줍음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는 성격 특질인 동시에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역시 수줍음이라는 단일 개념을 다양한 사회적 상황 전반에 걸쳐 발현되는 성격 특성적 수줍음과 특정 상황과 맥락에 따라 발현되는 구체적인 양상의 수줍음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을 것이다(Carducci, 2016; Cheć, 2019; Cheek & Buss, 1981; Hopko et al., 2005; Jones et al., 1986). 이에 더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척도의 구성을 단일 요인부터 5개 요인으로 나누어 적합도를 검토한 Crozier(2005)는 RCBS에 2개 요인 구조가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어, 요인 구조적 측면에서도 본 연구 결과가 선행연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사료된다.

둘째,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진행한 결과, 한국판 RCBS는 7문항의 2요인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 결과 확인된 역채점 문항의 낮은 문항 신뢰도 값과 RCBS에서 역채점 문항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한 선행연구 제언에 따라(Crozier, 2005),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 문항을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였다. Crozier(2005)는 2개 요인 구조에서 역채점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나머지 문항들이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역채점 문항으로 변인을 측정하는 것이 변인 속성의 양극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지, 수줍음이나 외로움처럼 확연하게 극단을 표현하기 어려운 개념에 적용하기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해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기존에 변안되어 있던 한국판 RCBS의 경우, 원판 RCBS와 달리 6번 문항이 역채점화 되지 않았다("It does not take me long to overcome my shyness in new situations (원판).", "낯선 상황(처음 가는 자리)에서 쉽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변안)."). 연구 데이터 분석 결과, 흥미롭게도 6번 문항은 다른 역채점 문항에서 확인된 통계적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Crozier(2005)가 주장했듯 RCBS에 역채점 문항이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겠다. 척도를 구성할 때 역채점 문항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수검자의 편향을 일으키거나, 외려 모형의 적합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Suárez-Alvarez et al., 2018; Vigil-Colet et al., 2020; Weijters & Baumgartner, 2021). RCBS의 경우 역채점 문항을 구성하면서 타당한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Cheek & Buss, 1981), 이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6번 문항을 통해 확인된 현상을 토대로 추론해 보았을 때, RCBS의 경우 역채점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정방향 채점 형태로 바꾸어 적용 및 검증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역채점 문항을 제외하면서 최종 선정된 모형에서는 총 문항 수가 다수 감소하였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대해 RCBS의 경우 다문항 구성보다 단축형 문항 구성이 보다 적합할 수 있

을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한다(Nakai & Gurung, 2021). 상기 사항들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간결한 형태의 본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셋째, 수렴 타당도 확인을 위해 한국판 RCBC와 다른 척도들 간 상관을 분석하여 수줍음과 관련 개념들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줍음(K-RCBS)은 사회불안, 수줍음(DES-IV), 수치심, 죄책감, 대상성 자기관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주제성 자기관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자율성 자기관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먼저 사회불안과 수줍음의 경우, 수줍음이 높은 사람은 사회불안군에 비해 기능적으로 덜 손상되어 있고 부적응적 증상이 일시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차이가 있다(Turner et al., 1990). 그러나 두 개념 모두에서 신체적(예: 얼굴 붉어짐), 인지적(예: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행동적 증상(예: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유사점이 있기도 하다(Heiser et al., 2003; Turner et al., 1990). 본 연구 결과, RCBS 전체 점수 및 각 하위 척도에서 SIAPS와 큰 크기 이상의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었고, 이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수줍음과 유사한 정서인 죄책감, 수치심 변인과 더불어 해당 척도에 포함된 수줍음과 한국판 RCBS 간 관계도 함께 살펴보았다. 박소영과 주은선(2019)에 따르면, 한국인의 경우 수줍음을 수치심과 유사한 정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죄책감 역시 수줍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 정서 중 하나로 여겨진다(Fehr & Stamps, 1979). 이에 본 연구에서 세 가지 정서 변인을 RCBS와 함께 살펴보고, 연구 결과 한국판 RCBS 총점 및 각 하위 요인들과 세 정서 변인 간 관계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해당 결과 역시 수줍음에 대한 기존 연구 내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수줍음이 문화적 영향을 주요하게 받으며, 이에 따른 양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 선행연구의 제언에 따라(Nakai & Gurung, 2021; Sato et al., 2018), 대표적인 문화 차 측정 변인인 자기관 척도와 한국판 RCBS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동시 타당도를 추가 확인하였다. Sato 등(2018)은 수줍음의 의미가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에서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수줍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수줍음이 높을수록 그 문화에 적합한 행동을 나타낼 것으로 보았다(예: 주변의 분위기를 읽고, 주장을 내세우기 보다는 사회적 맥락에 나를 맞춤). 한국을 집단주의 문화로 가정된 본 연구 결과도 그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한국판 RCBS는 나를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로 보는 ‘주체성 자기’ 요인과 -.28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대로 나를 사회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대상으로 보는 ‘대상성 자기’ 요인과는 .46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자기를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는 ‘자율성 자기’ 요인의 경우에는 수줍음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때 DES-IV에서 측정한 수줍음의 경우, ‘대상성 자기’와는 큰 크기에 가까운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주체성 자기’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자율성 자기’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주체성/자율성 자기에서 보인 이런 차이는 DES-IV에서 특정 상황이나 맥락을 제시하지 않고, 현재 나의 상태에 초점을 맞춘 수줍음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 된다(예: “숨고 싶을 만큼 쑥스럽습

니까?”). 종합했을 때, 수줍음이란 문화 및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는 개념인 한편, 주체적으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그에 순응하는 경향성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단순히 수줍음이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문화적 차이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RCBS의 경우 선행연구를 통해 진행된 타당화 작업에서 일관적인 요인 구조가 발견되지 못하고 있으며(Crozier, 2005; Hopko et al., 2005; Nakai & Gurung, 2021; Sato et al., 2018), 이러한 불일치에 대해 연구자들은 수줍음이라는 개념의 문화 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Nakai & Gurung, 2021; Sato et al., 2018). Sato 등(2018)의 연구는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는 일본에 수줍어하는 성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전제로 RCBS와 내향성, 내적 귀인, 행동 억제 시스템 간 정적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동일한 일본인 데이터에 미국인 데이터를 추가하여 진행된 Nakai & Gurung(2021)의 후속 연구에서는 RCBS의 측정 동일성 검증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수줍음의 문화 차가 직접적으로 시사되기도 하였다. 즉 수줍음에 대해 문화에 따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 자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 따라 수줍음이 발현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병리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줍음의 부적응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 타당도 중 변별 타당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였다. 자기관 척도와 한국판 RCBS의

상관분석을 통해 주체성, 자율성 자기관과 수줍음이 부적 상관을 보이거나 유의한 관련이 없다는 점을 밝혔으나, 이것이 변별 타당도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수줍음이라는 변인의 특성상 중첩되는 개념이 많은 측면이 있고(Jones et al., 1986), 이와 관련해 선행연구에서는 수렴 타당도 위주의 검증이 진행되어 왔다(Hopko et al., 2005; Nakai & Gurung, 2021; Sato et al., 2018). 다만 문화 비교 연구를 통해 수줍음과 부적인(예: 외향성) 혹은 정적인(예: 신경성) 관계성을 보이는 맥락의 변인이 확인되어 온 바(예: RCBS와 Big-5 간 관계 분석; Nakai & Gurung, 2021; Sato et al., 2018),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타당도 검증에 적절한 변인을 선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문화 차 변인인 자기관 척도를 측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화 간 비교를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수줍음의 문화적 특성과 수줍음 자체에 기인한 특성을 구분하기에는 부족하였다. Nakai와 Gurung(2021)은 RCBS와 관련 특성 변인 간 관계 패턴이 일본과 미국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난 결과를 예로 들며, 수줍음의 발생 기저는 동일하지만 그것이 발현되는 양상이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대상으로, RCBS에 대한 측정 동질성(measurement invariance) 분석과 같은 범문화적 탐색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원척도에서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었던 6번 문항이 한국어판에서는 역채점화 되지 않았다. 이 문항이 척도의 타당화 작업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니나, 요인 분석 결과 6번 문항의 경우 다른 역채점 문항(3, 9, 12번)에서 보인 낮

은 신뢰도나 동일한 요인으로 묶이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아직 RCBS 내 역채점 문항의 적절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으며, 의문이 제기된 경우는 있지만 그 해결책이 확인되지 않는 실정이다(Crozier, 2005). 따라서 추후에는 RCBS 역채점 문항에 대한 적절성 검증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RCBS의 하위 요인 간 큰 크기 이상의 상관을 보여 의미 해석에 제한이 존재할 수 있겠다. 선행연구 역시 도출된 RCBS 하위 요인 간 중간에서 큰 크기 이상의 상관을 보인 바 있고,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명료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수줍음이라는 변인의 특성 및 RCBS 요인 구조의 비밀관성에서 오는 한계를 언급하며 후속 연구를 제안해왔다(Hopko et al., 2005; Sato et al., 2018). 이러한 설명에 더해, 본 연구 결과 도출된 최종 문항의 수가 적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리라 추측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앞서 거론된 역채점 문항의 한계를 보완하여 척도를 구성한 후 추가적으로 구조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자기 보고식으로 수집되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수줍음이 최근까지 연구 장면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며, 수줍음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RCBS가 꼽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는 RCBS의 번안본을 타당화 하였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나아가 분류된 2요인의 적절성을 기존 RCBS가 가지고 있던 역채점 문항의 한계와 국내에서 역채점으로 번역되지 않은 6번 문항 간 비교를 통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수줍음을 변인으로 사용하는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

수줍음의 구성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본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고은혜 (2014). 중학생의 수줍음과 대인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간 폐쇄형 의사소통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은혜, 김근영 (2017). 중학생의 수줍음과 대인불안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부모-자녀 간 폐쇄형 의사소통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5), 55-78.
<https://doi.org/10.21509/KJYS.2017.05.24.5.55>
- 김근영, 윤진 (1995). 수줍음과 대인관계 변인간의 상호관련성 - 사회적 기술 및 동기요인의 역할을 중심으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6(1), 90-99.
- 김소정, 윤혜영, 권정혜 (2013).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K-SIAS)와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PS)의 단축형 타당화 연구. 인지행동치료, 13(3), 511-535.
- 김재현, 이형룡 (2020).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2)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분식점 키오스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용: 수줍음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9(5), 99-118.
<https://doi.org/10.24992/KJHT.2020.07.29.05.99>
- 박소영, 주은선 (2019). 한국적 정서표현의 특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1), 25-52.
<https://doi.org/10.22257/kjp.2019.3.38.1.25>
- 설현수 (2019). jamovi 통계프로그램의 이해와 활용 (2판). 서울: 학지사.
- 송수민 (2009). 상황 변인에 따른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67-283.
- 신재은, 김설민, 전미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 유재학 (2015). 한국판 수치심 경험 척도(k-es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23-39.
- 우종필 (202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원태연, 정성원 (2010). SPSS 18.0 통계조사 분석. 서울: 한나래.
- 이누미야 요시유키, 한민, 이다인, 이주희, 김소혜 (2007).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17-34.
<https://doi.org/10.21193/kjspp.2007.21.2.002>
- 이선화, 김보미, 유성은 (2012). 차별적 정서척도(DES-IV)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1), 147-167.
- 이현숙, 정현희 (2004). 학교-기반의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수줍음 아동의 사회적 기술,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 79-100.
- 정민 (2013).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대한 성격, 사회적 기술, 부정적 자동적 사고 및 수줍음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3), 1995-2010.
<https://doi.org/10.15703/kjc.14.3.201306.1995>
- 최명희, 김진숙 (2019). 대학생 사회불안 척도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2), 645-670.
- 한민,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소혜, 장웨이 (2009). 새로운 문화-자기관 이론의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들

- 의 자기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49-66.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황성동 (2019). 누구나 할 수 있는 jomovi 통계 분석. 학지사.
- Afshan, A., Askari, I., & Manickam, L. S. S. (2015). Shyness, self-construal, extraversion-introversion, neuroticism, and psychoticism: A cross-cultural comparison among college students. *SAGE Open*, 5(2), 215824401558755. <https://doi.org/10.1177/2158244015587559>
- Asendorpf, J. B. (1990). Beyond social withdrawal: Shyness, unsociability, and peer avoidance. *Human Development*, 33(4/5), 250-259. <https://doi.org/10.1159/000276522>
- Bartlett, M. S. (1950). Tests of significance in factor analysis. *British Journal of Statistical Psychology*, 3, 77-85.
- Brook, C. A., & Willoughby, T. (2019). Shyness and social anxiety assessed through self-report: What are we measuring?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101(1), 54-63. <https://doi.org/10.1080/00223891.2017.1388808>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and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rowne, J. A., & Howarth, E. (1977). A comprehensive factor analysis of personality questionnaire items: A test of twenty putative factor hypothes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12(4), 399-427. https://doi.org/10.1207/s15327906mbr1204_1
- Byrne, B. M. (201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Mplu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New York: outledge.
- Carducci, B. J. (2016). Shyness. *Encyclopedia of Mental Health*, 4, 147-151. <http://10.1016/b978-0-12-397045-9.00222-6>
- Chęć, M. (2019). Contemporary views on shyness - A literature review. *Archives of Psychiatry and Psychotherapy*, 21(3), 77-84. <https://doi.org/10.12740/APP/109628>
- Cheek, J. M. (1983). The revised cheek and buss shyness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Wellesley College, Wellesley.
- Cheek, J. M., & Briggs, S. R. (1990). Shyness as a personality trait. In W. R. Crozier (Ed.), *Shyness and embarrassment: Perspectives from social psychology*(pp. 331-33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2), 330-339. <https://doi.org/10.1037/0022-3514.41.2.330>
- Cheek, J. M., & Melichor, L. A. (1985). Measuring the three components of shyness. In M. H. Davis & S. L. Franzoi (Chairs), *Emotion, personality, and personal well-being II* [Symposium].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vention, Los Angeles, CA, United States.
- Chen, X. (2019). Culture and shynes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Ideas in Psychology*, 53, 58-66. <https://doi.org/10.1016/j.newideapsych.2018.04.007>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stello, A., & Osborne, J. (200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recommendations for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10*(7), 1-9.
- Crocker, L., & Algina, J. (1986) *Introduction to classical and modern test theory*. Holt, Rinehart, and Winston.
- Crozier, W. R. (2005). Measuring shyness: Analysis of the revised cheek and buss shyness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8), 1947-1956.
<https://doi.org/10.1016/j.paid.2004.12.002>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https://doi.org/10.1037/1082-989X.1.1.16>
- Fehr, L. A., & Stamps, L. E. (1979). Guilt and shyness: A profile of social discomf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3*(5), 481-484.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4305_8
- Heiser, N. A., Turner, S. M., & Beidel, D. C. (2003). Shyness: Relationship to social phobia and other psychiatric disorde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2), 209-221.
[https://doi.org/10.1016/S0005-7967\(02\)00003-7](https://doi.org/10.1016/S0005-7967(02)00003-7)
- Hopko, D. R., Stowell, J., Jones, W. H., Armento, M. E. A., & Cheek, J. M. (2005).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revised cheek and buss shyness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4*(2), 185-192.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8402_08
- Horn, J. L. (1965). A rationale and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in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0*, 179-185.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ones, W. H., Briggs, S. R., & Smith, T. G. (1986). Shynes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3), 629-639.
<https://doi.org/10.1037/0022-3514.51.3.629>
-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1), 31-36.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eary, M. R. (1983). Social anxiousness: The construct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7*(1), 66-75.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4701_8
- Ludwig, R. P., & Lazarus, P. J. (1983). Relationship between shyness in children and constricted cognitive control as measured by the stroop color-word tes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3), 386-389.
<https://doi.org/10.1037/0022-006X.51.3.386>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https://doi.org/10.1037/0033-295X.98.2.224>

- Nakai, S. C., & Gurung, R. A. R. (2021). Measurement invariance analysis on the revised cheek and buss shyness scale in a U.S. and Japanese college sample. *Psi Chi Journal of Psychological Research*, 26(4), 383-394.
<https://doi.org/10.24839/2325-7342.JN26.4.383>
- Navarro, D. J., & Foxcroft, D.R. (2019). *Learning statistics with jamovi: a tutorial for psychology students and other beginners. (Version 0.70)*.
<https://doi.org/10.24384/hgc3-7p15>
- Sato, E., Matsuda, K., & Carducci, B. J. (2018). A factor analytical investigation of the Japanese translation of the cheek-buss shyness scale in support of the three-component model of shyn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4, 160-167.
<https://doi.org/10.1016/j.paid.2017.12.006>
- Schmidt, L. A., & Fox, N. A. (1999). Conceptual, biological, and behavioral distinctions among different categories of shy children. In L. A. Schmidt & J. Schulkin (Eds.), *Extreme fear, shyness, and social phobia: Origins, biological mechanisms, and clinical outcomes* (pp. 47-66).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acprof:oso/9780195118872.003.0004>
- Sette, S., Baldwin, D., Zava, F., Baumgartner, E., & Coplan, R. J. (2019). Shame on me? shyness, social experiences at preschool, and young children's self-conscious emo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47, 229-238.
<https://doi.org/10.1016/j.ecresq.2018.12.012>
- Suárez-Alvarez, J., Pedrosa, I., Lozano, L. M., García-Cueto, E., Cuesta, M., & Muñiz, J. (2018). Using reversed items in likert scales: A questionable practice. *Psicothema*, 30(2), 149-158.
<https://doi.org/10.7334/psicothema2018.33>
- Tangney, J. P., Miller, R. S., Flicker, L., & Barlow, D. H. (1996). Are shame, guilt, and embarrassment distinct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256-1269.
<https://doi.org/10.1037/0022-3514.70.6.1256>
- Turner, S. M., Beidel, D. C., & Townsley, R. M. (1990). Social phobia: Relationship to shynes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8(6), 497-505.
[https://doi.org/10.1016/0005-7967\(90\)90136-7](https://doi.org/10.1016/0005-7967(90)90136-7)
- Vigil-Colet, A., Navarro-González, D., & Morales-Vives, F. (2020). To reverse or to not reverse likert-type items: That is the question. *Psicothema*, 32(1), 108-114.
<https://doi.org/10.7334/psicothema2019.286>
- Weijters, B., & Baumgartner, H. (2021). On the use of balanced item parceling to counter acquiescenc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25(1), 170-180.
<https://doi.org/10.1177/1094428121991909>
- Zimbardo, P. G., Pilkonis, P., & Norwood, R. (1977). *The Silent Prison of Shyness*. STANFORD UNIV CA DEPT OF PSYCHOLOGY.

원고접수일 : 2023. 01. 09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2. 28

게재결정일 : 2023. 03. 27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Cheek-Buss Shyness Scale

Seo-Hui Lee

Jung-Kwang Ah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h.D. student

Assistant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Cheek-Buss Shyness scale, which measures the shyness of individuals. A total of 320 online panels were recruited. We conducte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on half of the randomly selected data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on the remaining half. According to the EFA results, the K-RCBS had a 7-item two-factor (circumscribed shyness, general shyness) structure. As a result of CFA, the two-factor model showed a suitable model fit. The K-RCBS had good reliability validity and adequate convergent/concurrent validity. The findings suggested that the K-RCBS could contribute to identifying the structure of shyness and enhanc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research on shyness. Future research will need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inverse scoring item of the K-RCBS and identify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shyness.

Key words : shyness scale, circumscribed shyness, general shyness, social anxiety, validation

부 록

부록. 한국판 수줍음 척도(K-RCBS)

다음의 문항들을 읽고, 평소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와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정도를 O표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잘 모르는 사람과 있을 때, 긴장이 된다.					
2.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3. 낯선 상황(처음 가는 자리)에서 쉽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					
4.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					
5. 나보다윗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긴장이 된다.					
6. 나는 다른 사람의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이 힘들다.					
7. 나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상황에서 주눅이 든다.					

※ 상황적 수줍음: 1, 3, 4, 5

※ 보편적 수줍음: 2, 6, 7